

# 해외건설 **INSIGHT**

2023 Vol.4

미국 인프라시장 진출동향 및 시사점



## I. 서론

## II. 본론

1. 미국 건설시장 진출 현황
2.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사례
3. 해외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사례

## III. 결론

1. 종합의견
2. 맺음말



I. 서론 .....	1
II. 본론 .....	2
1. 미국 건설시장 진출 현황 .....	2
2.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사례 .....	5
3. 해외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사례 .....	11
III. 결론 .....	13
1. 종합의견 .....	13
2. 맺음말 .....	14

## I 서론

- 최근 국내 건설경기 침체<sup>1)</sup>에 따른 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진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미국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숙도가 높은 미국 건설시장은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sup>2)</sup>
  - 미국 건설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1조 1966억불)로, 2027년까지 연평균 0.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sup>3)</sup>
- 바이든 행정부는 2.2조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sup>4)</sup>’을 발표하는 등 노후화된 국가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며, 운송 인프라 부문 6,210억불, 제조업·혁신 부문 5,800억불, 제조업·중소기업 부문에 3,000억불 등의 분야에 8년간의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임
  -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 재건을 위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더 많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함
  - 물적 인프라 투자(American Jobs Plan, 1단계)와 인적 인프라 투자(1.8조불<sup>5)</sup>, American Family Plan, 2단계)를 합한 총투자 규모는 최대 4조불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됨
- 인프라 부문의 예산 확대로 인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부문이 추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가 예상되나, 동시에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도 함께 강화되어 외국기업의 인프라 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
  -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강화로 핵심 제품과 구성품에 대한 자국산 우대 강화 및 자국산 사용 예외 규정을 더 엄격하게 규정함<sup>6)</sup>에 따라, 현지 투자 및 채용을 더 강력하게 유도
  -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2023.4.24.~30)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불리할 수 있는 반도체법<sup>7)</sup> 및 인플레이션감축법<sup>8)</sup>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호 호혜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임
- 이처럼 지속적 인프라 투자가 기대되지만, 진입장벽이 높아진 미국 건설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과 외국기업의 진출 사례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888호. 2022년 진단과 2023년 전망

2) IHS Markit Connect. 2023.4 Global Construction Outlook

3) IHS Markit Connect. 2023.4 Global Construction Outlook Tables: Executive Overview

4) The White House. 2021.3.31.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5) 무상교육 확대, 보육지원, 유급휴가제도 확대, 세금감면 조치 등

6) 자국산 인정 기준 강화(2022.10 연방 조달규정 개정안), MadeinAmerica 출범 연방 조달 가이드라인 제공 등

7) Chips Act.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

8) Inflation Reduction Act.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법인세 최저세율(15%)을 도입

## II 본론

### 1. 미국 건설시장 진출 현황

#### 가. 수주 현황

- 미국 건설시장은 현대건설이 1970.1, 알래스카 허리케인 협곡 교량건설(120만불)로 최초 진출한 이래, 총 108개사가 490건 161억불을 수주하였음(2023.3월말 기준)
- 공종별로는 건축이 120억불(7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산업설비가 28억불(17.6%)로 뒤를 잇고 있음

#### 〈 우리 기업의 미국 건설시장 수주 현황 〉

(단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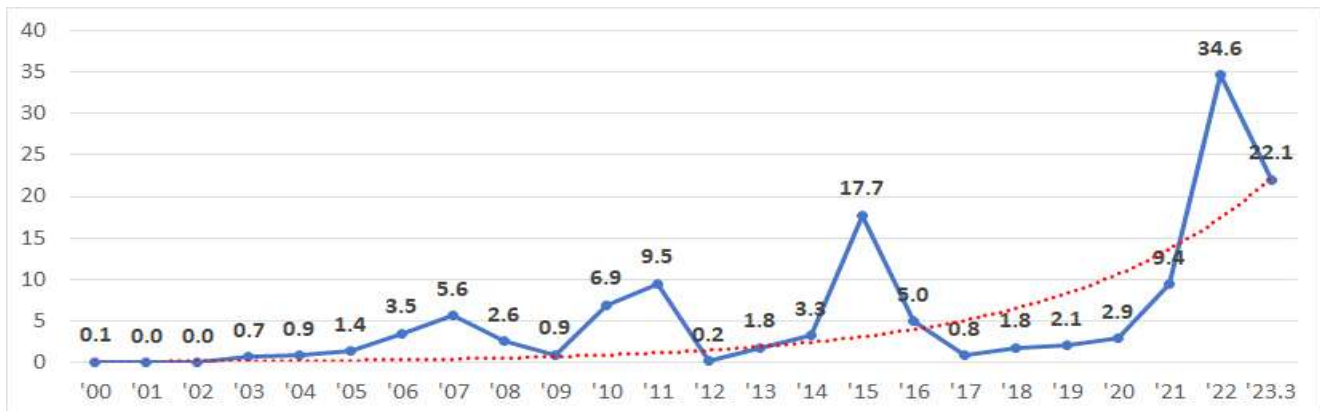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3말	합계
건수	365	21	17	17	51	19	490
금액	8,986	210	293	943	3,463	2,205	16,100

\*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2022년 삼성물산의 반도체공장 신축사업(19억불), 디엘이앤씨의 폴리에틸렌 플랜트(5억불), 현대ENG의 현대모비스 북미 EA 프로젝트(5억불) 수주 등에 힘입어 34.6억불의 최고 수주실적 달성

#### 〈 2000 이후 우리 기업의 미국 건설시장 수주 추이 〉

(단위: 억불)



\*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3월 말 현재 22.1억불을 수주하는 등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 수주액(34.6억불)의 약 64%에 해당함

<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주요 수주 프로젝트(2018이후, 3천만불 이상) >

업체	공사명	발주처	금액 (억불)	계약일
SK에코플랜트	에스케이 배터리 아메리카 2단계 건설공사	에스케이배터리	7.4	'20.12.11
디엘이앤씨	USGC-2 고밀도폴리에틸렌 EPC	Golden Triangle Polymers	5.0	'22.7.7
현대ENG	현대모비스 북미 EA 프로젝트	모비스 조지아 법인	5.0	'22.8.3
삼성물산	삼성전자 오스틴 리트로핏(Austin Retrofit) 공사	삼성전자 오스틴 법인	3.5	'20.12.29
삼성물산	삼성전자 S2-R 2차 공사	삼성전자 오스틴 법인	2.1	'17.2.1
현대ENG	현대모비스 북미 전동화공장 신축공사	모비스 북미법인	1.3	'22.11.30
현대ENG	조지아 트랜시스 변속기공장 신축공사	현대트랜시스 조지아법인	1.3	'20.12.17
LS일렉트릭	BlueOval SK 배터리 파크 글렌데일 KY 프로젝트	BlueOval SK	0.7	'22.6.1
중원ENG	GM Ultium Cells 2기 코터 열배기덕트 및 열류배관 설치공사	LGES+GM	0.7	'22.7.8
SK에코ENG	SVM Absolics 반도체 기판 생산설비 파일럿 공사	애플릭스	0.6	'22.8.3
반도종합건설	더 보라 3170 프로젝트	반도 텔라 코퍼레이션	0.6	'20.2.24
현대ENG	알라바마 시트공장 신축공사	현대트랜시스 조지아법인	0.5	'22.9.1
현대ENG	미국 알라바마 HMMA 엔진공장 신축공사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법인	0.5	'18.6.13
SK에코플랜트	투식스 이스턴 공장 연료전지 프로젝트(2251 Newlins)	비티 에프씨 엘엘씨	0.5	'22.5.20
현대ENG	HMMA 신규차종 대응 증설공사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법인	0.4	'22.5.26
현대ENG	HMMA 다차종 대응 증설공사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법인	0.4	'19.12.20
SK에코플랜트	에퀴닉스 연료전지 프로젝트	비이 디벨롭먼트 인코퍼레이티드	0.3	'20.12.03

\*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나. 수주 특징

- 2010년도를 기점으로 미국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미국 시장 수주액의 상당 부분은 롯데건설(롯데알미늄), 삼성물산(삼성전자), 현대ENG(현대모비스) 등 미국에 생산설비를 투자하는 모그룹의 계열사가 사업주인 공사임
  - 반면에 해당 기간 수주 건수의 상당 부분은 박람회 등을 위한 부스 공사나 조형물, 인테리어, 대사관 전기 공사 등 소규모의 이벤트성 공사임
- 그룹계열사 위주의 투자사업이 당분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현지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관련 공사 수주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
- 대규모 단위 프로젝트는 SK에코플랜트(연료전지 분야), 삼성물산(삼성전자), 현대ENG(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 공사) 등 그룹에 속한 건설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대규모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디엘이앤씨가 한국 외의 발주처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
- 해당 기간 수주한 프로젝트의 공종<sup>9)</sup>은 건축이 대다수(86.4%, 7.3억불 중 6.3억불)를 차지하고 있음
  - 건축 프로젝트 중 주거용 건축은 반도체종합건설의 더 보라 3170 프로젝트가 유일하게 눈에 띄는 프로젝트임

9) 수행 프로젝트가 배터리, 반도체 공장 등의 설비를 제외한 건축 공사 중심



## 2.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사례

### 가. 플랜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간 사업진출: 디엘이앤씨, 삼성ENG, 현대ENG

- 디엘이앤씨는 사우디에서 수행했던 NCP 석유화학단지<sup>10)</sup>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입찰에 초청받아 Chevron Philips Chemical(CPChem)의 USGC 2<sup>11)</sup> 프로젝트의 기본설계(FEED, 2019.9)에 이어 본공사를 수주(2022.7)
  - EPC의 선행 단계인 FEED(Front-End Engineering Design)에 대한 계약 체결 및 수행 후 5억불 규모의 본공사 EPC를 수주
  - FEED 및 EPC 모두 DL USA(디엘이앤씨의 미국 현지법인)와 미국 시공업체인 Zachry와 Joint Venture인 ZDJV<sup>12)</sup>로 수행
- \* DL그룹은 미국 화학회사 크레이튼 인수(2021.9) 및 페어뷰 복합화력발전소 지분 인수(2021.3) 등 미국진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
- 삼성ENG는 세계적 선진 건설기업인 Technip과의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텍사스 브라운스빌 지역에 LNG 액화 플랜트 생산 시설의 건설공사에 대한 FEED 및 EPC 금액 산출 프로젝트 수주(2022.5)<sup>13)</sup>
  - 이 설비는 텍사스주의 기존 가스 배관으로부터 가스를 받아 액화 처리하여 연간 4백만톤의 LNG를 처리하여 수출하는 시설
  - FEED 및 EPC 금액을 산출하는 프로젝트이므로, 성공적 수행 시 향후 EPC 수주로 연계도 기대할 수 있음
- 현대ENG는 미국 Encina Development Group에서 발주한 페플라스틱 재활용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에 대한 FEED 계약
  - 이 프로젝트는 펜실베이니아주 노섬버랜드 지역에 연간 45만톤 규모의 페플라스틱을 화학적 재생 공정을 거쳐 벤젠, 톨루엔 및 기타 석유화학제품 15만여 톤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친환경 프로젝트

10) (발주처) Saudi Chevron Petrochemical Company, (공사금액) 11.2억불, (공기) 2008.1~2011.5

11) Texas주 Orange에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100만톤 생산설비 2기 신설, Bank of China, BNP Paribas, Scotiabank, HSBC 등이 금융지원(총 51억불 규모)에 참여

12) JV의 전체 계약금액은 약 12.5억불(디엘이앤씨 40%, Zachry 60%)

13) Pre-FID Engineering(최종투자결정전 설계), Technip Energies 하도급 계약

## 나. 직접 투자를 통한 소규모 원전 사업진출: 디엘이앤씨,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ENG

- 디엘이앤씨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X-Energy)<sup>14)</sup>에 2천만불을 투자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며 미국 SMR 사업에 진출
  - 엑스에너지 원전 설비는 비경수로형<sup>15)</sup> SMR 기술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미국 정부로부터 12억불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음
- \* 한국 사모펀드 운용사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여 엑스에너지에 6천만불 추가 조달 예정
- 두산에너빌리티도 엑스에너지에 5백만불을 투자하여 전환사채 인수 및 뉴스케일 파워(Nuscale Power)와 계약을 통해 미국 SMR 시장진출
  - 엑스에너지와 투자 계약과 함께 원전의 핵심 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도 맺어, 향후 엑스에너지의 EPC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이와 함께 뉴스케일 파워와 SMR 소재 계약을 체결(2023.3)하고 주기기 제작 등에 참여할 예정
- 삼성물산은 미국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에 총 7천만불을 투자를 통해 미국의 첫 SMR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아이다호주 발전소<sup>16)</sup>에 참여할 예정
  -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가 추진 중인 SMR로 총 4672MW(77MW 모듈 6개)의 전력 생산 예정이며, 2029년 상업운전개시 목표
  - 시공 계획 수립 및 기술 인력 파견을 통해 기술과 역량 공유 계획
- 현대ENG는 USNC(Ultra Safe Nuclear Corp.)와 3천만불 규모의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2022.1)하고 USNC MMR<sup>17)</sup>의 EPC 사업 독점권 확보
  - USNC는 캐나다 동부 토론토 북동쪽 초크리버원자력연구소에 MMR 실증 플랜트 사업을 계약(2022.6) 및 폴란드 레그니차 경제특별구역 MMR 사업개발 MOU 체결(2023.2)

14)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DOE)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SMR 기업

15) 4세대 고온가스로(Xe-100) 설비를 기반으로 한 SMR. 안정성이 높은 테니스공 크기의 차세대 핵연료를 사용하는 320MW 규모(80MW 원자로 모듈 4기)의 발전용량을 갖는 설비. 냉각재로 물이 아닌 헬륨을 사용

16) Caron Ree Power Project

17) Micro Modular Reactor, 초소형 모듈 원자로



#### 다. 현지 투자(계열사 포함) 프로젝트: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ENG

- SK에코플랜트는 미국 현지법인(지분 100%) SK E&C BETEK Corporation<sup>18)</sup>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미국 연료전지공장 건설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받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1,006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공
  - 이 대출 자금은 미국 시장점유율 1위 데이터센터 전문기업인 에퀴닉스(Equinix)의 데이터센터 내부에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에 사용할 계획
  - SK에코플랜트는 SK ecoplant Americas을 통해 북미 현지에서 입지를 다지고, 기존 연료전지 사업에서 그린수소,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등 환경·에너지 분야까지 사업영역 확장을 모색하는 중임
  -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진출을 위해 전문기업 어센드 엘리먼트스(Ascend Elements)<sup>19)</sup>와 총 5천만불 규모의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2022.9)
-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과 롯데알미늄이 합작<sup>20)</sup>하여 미국 켄터키주 엘리자베스타운 근처에 건설을 추진 중인 알루미늄 양극박<sup>21)</sup> 생산공장의 기술 자문 용역(2022.10)을 수행
  - 롯데알미늄 미국 법인인 롯데알미늄USA의 요청에 따라 공장 신설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 용역으로 참여
- 삼성물산은 모그룹 계열사의 현지법인(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법인)에서 발주한 오스틴 리트로핏(Austin Retrofit) 공사(2020.12)를 수행하는 등 미국에서 계열사 반도체 공장 관련 공사를 지속해서 수행 중임
- 현대ENG도 모그룹 계열사의 현지법인(현대 모비스 북미법인)의 현대모비스 북미 EA 프로젝트(2022.8) 등 계열사 프로젝트 관련 공사 지속 수행 중임

18) 2023.2 SK E&C BETEK Corporation의 사명을 SK ecoplant Americas로 변경

19) 2015년 매사추세츠주에 설립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20) 롯데케미칼의 미국 전지소재법인인 롯데배터리머티리얼즈USA와 롯데알미늄의 미국 법인인 롯데알미늄USA가 총 3,300억원(각각 70:30 지분)을 투자

21)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알루미늄을 매우 얇게 가공해 생산

## 라. 현지 부동산 개발 진출: GS건설, 반도건설, 대우건설(중흥그룹)

- GS건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 자이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지 합작법인인 Mountain View Owner(GS건설 지분 92.15%)가 시행사로 참여함
  - 이 사업은 캘리포니아 마운티 뷰 지역에 추진되는 5억불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시공은 현지업체가 수행할 예정임
  - 노후 Multifamily property 208세대를 3개동 716세대로 개발하는 사업과 기존 사무용 건물을 Multifamily 1개동, 408세대로 개발하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구성돼있음
  - 3개동 716세대 사업은 건축설계 및 철거를 거쳐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개동 408세대 사업은 기존 노후건물 매입 후 건축설계 진행 중
  - 사업 기간은 각각 2021~2026년, 2022~2028년으로 예정돼있으며, 공사 및 운영(임대)사업도 포함돼있음
- 반도건설은 LA에 토지 매입부터 설계, 시공까지 직접 하는 자체 개발사업인 The BORA 3170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20.1월에 착공하여 2023.3월에 준공하였음
  - 프로젝트 착수 2년 전부터 해외사업 전문 TF팀을 구성해 LA 주택시장에 대한 건축법, 인허가, 기술적 리스크 등을 분석·관리해왔으며, 인근에 2차, 3차(콘도미니엄, 주상복합아파트 등) 및 추가 후속 프로젝트를 검토 중으로 1000여 가구의 더보라(The BORA) 대단지 조성을 추진 중임
  - 또한 사업지 인근 글렌데일시<sup>22)</sup>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MOI(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2022.6.22) 및 텍사스주 테일러시<sup>23)</sup>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서(MOI)를 체결하며 미국 주택시장에서 지속해서 사업을 확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22) LA 카운티 88개 시 중, 3번째로 큰 도시, 인구 증가로 주택부족난이 심화하고 있어 층고 제한 및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

23)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에 위치해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신공장이 들어설 예정

< GS건설 및 반도건설 주거시설 조감도 · 사진 >



- 대우건설 · 중흥그룹은 미국 텍사스주 루이스빌시(2022.5.3), 캐럴턴시(2022.5.5)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뉴저지주(2022.5.6)와 주거개발사업 투자의향서(LOI)를 체결
  - 텍사스주 캐럴턴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486,000㎡ 규모의 부지개발사업을 착수할 예정
  - 뉴저지주에서는 20층짜리 37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미 주택 인허가를 승인받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됨
  - 대우건설은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현지법인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
  - 하지만 2022.3월 말 대우건설이 국내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차입금(브리지론<sup>24)</sup>)을 상환하며 시공권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등 금리 인상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중이므로, 미국에서의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4)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차입해서 쓰다가, 사업성이 개선되어 제1금융권의 자금을 차입하게 되며, 이때 제2금융권의 차입금을 뜻함

## 마. 현지 기업과 기술 협력 진출: 현대건설

-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sup>25)</sup>과 원전 해체 협약(Teaming Agreement)을 체결(2022.3.28)하며 뉴욕주의 인디언포인트 원전을 통해 미국의 원전 해체사업에 최초로 진출하게 됨
  - 이 협약은 원전 해체사업의 PM 계약을 포함하며, 공정 및 공사계획, 대형기기 부피감용, 화학 제염, 원자로 압력용기 및 내장품 절단 등 원전 해체의 전반적 사업 분야에 직접 참여
  - 인디언포인트 원전은 가압경수로 총 3기(2,317MW)로 1962년 1호기, 1974년 2호기, 1976년 3호기가 완성돼서 가동·운전을 해온 후 2021.4월 3호기가 마지막으로 영구 정지됨
  - 2021.11월에도 홀텍과 SMR<sup>26)</sup>(소형모듈원전)-160 협약(Teaming Agreement)을 체결한 데 이어 원전 해체사업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며 국내 기업의 선진기술 축적으로 향후 국내외 원전 해체사업 진출 기반 마련
- 2022.5월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sup>27)</sup>와 미국형 대형원전(AP1000<sup>28)</sup>) 사업의 글로벌 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Strategic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프로젝트별 계약을 통해 차세대 원전 사업의 상호 독점적 협력 및 EPC 분야 우선 참여 협상권 확보
  - AP1000 모델을 활용한 EPC 수행역량을 제고하고, 친환경 저탄소로 사업영역 확장

25) 홀텍(Holtec)은 미국 인디언포인트, 오이스터크릭, 필그림 등의 원전 해체사업을 진행 중인 에너지 및 시스템·기자재 회사

26) Small Modular Reactor

27)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미국 원자력 회사로, 세계 50% 이상의 원전에 원자로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28) AP1000은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3세대 원자로

### 3. 해외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사례

- ENR에서 발표(2022.8.25)<sup>29)</sup>한 2021 미국 해외건설 시장 매출 규모(406억불) 상위 10개 글로벌 건설사(점유율 79.6%)는 아래 표와 같으며, 유럽과 일본 회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Rank	건설사	Rank	건설사
1	GRUPO ACS/HOCHTIEF(스페인)	6	BOUYGUES(프랑스)
2	SKANSKA AB(스웨덴)	7	OBAYASHI CORP.(일본)
3	FERROVIAL(스페인)	8	LENDLEASE(호주)
4	VINCI(프랑스)	9	WEBUILD SPA(이탈리아)
5	KAJIMA CORP.(일본)	10	OHLA(스페인)

\* 출처: ENR, The Top 250(2022)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미국 건설시장 동향과 진출전략<sup>30)</sup>’에 따르면 위 유럽과 일본 건설기업들은 미국으로 진출 시 ① 현지법인 설립 후 M&A를 통한 사업 확대 ② 현지법인 설립과 M&A 병행 ③ JV 또는 M&A를 통한 진출 등의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 등의 방법으로 진출하였음
- 먼저 매출 규모 1위 기업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GRUPO ACS/HOCHTIEF<sup>31)</sup>는 지속적인 M&A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 및 성장(③)
  - HOCHTIEF는 1999년 Turner Corporation을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한 후 지속적으로 미국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며 북미 지역에 4개의 자회사를 보유
  - GRUPO ACS도 역시 지속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음

29) ENR. The Top 250

30) 연구원: 최석인, 손태홍, 박수진, 이지혜. 출판일: 2017.10.25

31) Hochtief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 스페인 기업인 Grupo ACS와 합병됨

- 매출 규모 2위 기업인 SKANSKA는 현지법인(Skanska USA Inc.)을 1971년 설립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Karl Koch(1982), Slattery(1987) 등 기업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경험을 축적하기 시작함
  - Skanska USA Inc.는 자회사로 Skanska USA Building과 Skanska USA Civil을 보유하고 있으며, 1973~2011까지 총 20개 사의 M&A를 진행(①)
- 매출 규모 3위인 FERROVIAL은 2005년 Ferrovial Agroman US Corp.를 설립하는 동시에 토목 전문기업 W.W. Webber를 인수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②)
  -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회사 설립 및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사업과 시장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 일본 기업인 KAJIMA는 1964년 미국 법인 설립 이후 미국 내 11개 자회사를 보유하는 등 현지 건설사 M&A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본 기업인 OBAYASHI는 1978년 미국 기업인 James E. Roberts Company와 공동 파트너십으로 Roberts-Obayashi Corporation을 설립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음
  - 일본 건설사들은 자국 기업들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면서 시공을 통한 수행 관리 경험을 축적
  - 일본의 투자개발형 사업 전문기구이자 PPP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JOIN<sup>32)</sup>이 설립된 이후, 2015.11월 텍사스 고속철도(달라스-휴스턴, 385km) 프로젝트에 4천만불을 투자하며 건설기업들도 동반 진출 지원
- 그 밖에 Top 10 명단에는 없지만, 프랑스의 선진 기업인 Technip도 해양기술 회사 CBS Eng.(1997), Kvaerner RJ Brown(2000)를 인수한 데 이어, 해저 석유 개발 분야 강화를 위해 Global Industries(2011, 10.7억불), 2012년에는 석유화학 원천기술 회사인 Shaw Group의 Stone&Webster(2012, 2.3억불)를 인수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중임

32) 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 & Urban Development, 일본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 지원기구. 2014년 설립



III

## 결론

### 1. 종합의견

- 미국은 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강화되고 있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외국 기업에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해외 선진 기업들도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음
  - 현지법인 설립, 미국 기업에 대한 M&A, 일정한 지분을 참여하여 협력하는 JV 등의 현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원전 해체, SMR·MMR 등 기술집약적, 친환경 사업 분야의 미국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선진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술력과 세계적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기업과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중동 등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의 프로젝트에서 협업하였던 발주처(원청사)에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 프로젝트의 수주로 연계도 가능하므로, 석유화학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공종의 성공적 수행을 바탕으로 미국진출 기회를 창출
-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강화로 생산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설비 투자 및 확충 시 계열사 동반 진출이나 정부 차원에서 PPP 사업 총괄 기구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개발사업 진출 시 인프라 건설 관련 기업들도 함께 진출하는 패키지·팀 형태의 진출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반 진출이나 팀 형태의 진출을 통해 실적을 확보하여 시장 진출영역의 확장 모색도 가능함
- 현지 부동산 개발(주거용 건축 사업)을 통해 진출 시에는 현지 법·제도 파악 및 장기전략 등 수립도 필요할 것이며, 해당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 진출하고자 하는 주의 지역 사법권(Local Jurisdiction) 요구사항 등 관련 정보 파악도 필요함
  - 개발사업 진출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sup>33)</sup>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33) 미국 연방준비은행 금리 5.0%('23.3.23)

## 2. 맺음말

- 최근 미국 건설시장 진출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바이 아메리카 등에 의한 대기업 진출을 위한 계열사 공사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연료)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 계열사 프로젝트 수주뿐 아니라 타 국가에서의 발주처의 성공적 사업 수행 등으로 인한 수주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계 수주가 지속해서 이어지면 이 실적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여 독자적인 프로젝트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음
- 특히 미국 내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이나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친환경, 저탄소, 수소 산업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출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해당 산업에 대한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도 필요할 것임
- 금융을 동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PPP 사업을 진행할 때 한국 디벨로퍼나 건설사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PF Loan에 주간사(Arranger)로 참여 중인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한국 금융기관과의 금융 협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서도 오하이오주 가스복합발전 사업 프로젝트<sup>34)</sup> 등 미국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금융뿐만 아니라 EPC, O&M을 아우르는 팀코리아 구성을 통해 원활한 진출 지원이 가능할 것임

34) 오하이오주 트럼불(Trumbull)에 953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에 한국남부발전과 지분투자.(KIND 16.78%, 한국남부발전 56.23%, 지멘스에너지 26.99%). 시공은 미국 Gemma사가 진행 중임('22.11~)



## - 국문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최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KOTRA. 2017. 한국 건설기업의 미국 공공건설시장(인프라) 진출전략  
 KOTRA. 2021.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산업, 미국 건설시장 동향과 전망  
 김종훈. 2021. 미국 건설시장 진출 방안([http://www.kimjonghoon.com/news/issue\\_view.asp?seq=1327&id=113](http://www.kimjonghoon.com/news/issue_view.asp?seq=1327&id=11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 미국 건설시장 동향과 진출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건설동향브리핑  
 한국은행. 2023. 최근 미국 주택시장 점검 및 전망  
 한국은행. 2021. (현지정보) 바이든 대통령, 1.8조 달러 규모의 American Family Plan 공개  
 해외건설협회. 2023.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전략  
 해외건설협회. 2023. (내부 보고자료) 최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동향(사례)

## - 영문 자료

ENR. 2022. The Top 250  
 Refinitiv. 2022. PROJECT FINANCE LOANS(4Q). ([workspace.refinitiv.com](https://workspace.refinitiv.com))  
 Made in America.gov ([www.madeinamerica.gov](http://www.madeinamerica.gov))  
 IHS Markit Connect. 2023.4 Global Construction Outlook  
 IHS Markit Connect. 2023.1 Global Construction Outlook Tables: Executive Overview  
 The White House. 2021.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31/fact-sheet-the-american-jobs-plan/>)

## - 언론 기사

딜사이트. 2021. 美인프라 686조 보따리...韓건설 진출 방안은  
 대한경제. 2021 일본은 어떻게 미국 인프라시장을 뚫었나

## - 데이터베이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http://www.icak.or.kr))